



HOME 사회·문화

## [지역 축전]죽산 페스티벌

안성 당북 마을에서 제4회 죽산국제예술제 열려...전위·실험적인 무용 음악 미술 선보여

[451호] 안성·成宇濟 기자 | 승인 1998.06.18 00:00

춤꾼이 산 중턱 야외 공연장으로 들어서기 직전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삼시간에 진흙탕으로 변한 무대 위로 일본인 무용가 류이치 아리사카 씨가 올라섰다. 장대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해 객석에서는 잠시 동요가 일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관객들의 동요는 긴장감으로 변했다. 류이치 씨의 춤이 비로 인해 방해받기는커녕, 그의 역동적인 몸짓 하나하나가 비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비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자연 현상을 예술 행위에 즉흥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같은 광경은 죽산국제예술제에서 펼쳐진 모든 공연에서 볼 수 있었다. 비와 초여름의 선선한 밤바람, 산의 서늘한 기운이 야외 무대를 에워싸는가 하면, 무대와 객석에서 숨을 죽일 때마다 절묘한 무대 음향이 들려오기도 했다. 개구리 울음소리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대는 소리였다.

4회째를 맞은 죽산국제예술제(6월4~7일)는 올해에도 역시 자연과 인간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당북 마을. 10여 호가 사는 작은 촌동네에서 펼쳐지는 죽산예술제는, 하루 관객이 수백명밖에 안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크고 국제적이다. 현대 무용가 홍신자씨가 예술감독을 맡아 95년에 무용제로 출범한 이 축전은 연극·퍼포먼스·음악·미술 등 각 장르가 함께하는 종합 예술 잔치로 성장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유럽·미국·몽골 등 여러 나라 예술가들이 함께 춤추고 연주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기업의 후원을 받지 못한 올해에는 예술가들의 국적이 한국·중국·일본에 국한했으나, '실험성'과 '전위성'을 앞세우는 죽산예술제의 성격은 그대로였다. 우 웬강(영화감독·

무용가) 웬 휘(무용가·이상 중국), 가카미 히카코(무용가) 오치 형제(음악·이상 일본), 심영철(미술) 박찬수(미술) 임동창(음악·이상 한국) 등 국내외 예술가 수십 명이 몸을 사리지 않고 전위적인 작품들을 한자리에 펼쳐놓았다.

### 뒷산이 무대, 새소리가 음향

실험성과 전위성이라는 죽산국제예술제의 특징은, 그 내용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잔치가 열리는 장소에서 먼저 느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도시에서 열리는 것이 축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죽산 축전은 공간 자체가 대단히 전위적이다. 잔치가 열리는 사단법인 '웃는돌'(Laughing Stone:홍신자씨가 73년에 창단한 무용단 이름)의 캠프는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1시간 30분 달려야 하고, 버스가 하루에 세 번밖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다. 밤 공연이 끝나면 관객들은 막차를 놓칠세라 허둥지둥한다.

공간이 갖는 이런 저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각국을 대표하는 전위적인 예술가들은 개런티도 받지 않은 채 초청에 응했으며, 임진택(연출가)·김채현(무용 평론가) 씨 같은 공연 관계자와 관객 들이 하루 수백명씩 몰려들었다. 관객 가운데는 지방에서 가족 단위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아예 마을에서 민박하면서 사나흘간 잔치를 즐기기도 했다. 죽산 축전이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마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력이란 다름 아닌 대자연이다. 축전 둘째날에도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다. 무대는 전날보다 훨씬 더 질퍽거렸다. 낮과 밤이 교차될 저녁 7시 무렵 야외 무대 아래로 멀리 내려다보이는 저수지와 저수지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들이 검게 변해 갈 즈음, 한 무용수가 군복 차림으로 춤을 추며 산에서 내려왔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그는 군용 배낭에서 원피스를 꺼내어 관객들 앞에서 갈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산 생활의 고달픔을 한꺼번에 풀어 버리려는 듯 그의 춤은 격정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춤이 지나자 그는 다시 군복으로 갈아입고 산으로 사라졌다. 산이라는 장소를 최대한 활용한 최데레사씨의 <언더그라운드>라는 작품이다.

### 예술가·관객, 모두 몸과 느낌으로 교감

최씨의 춤처럼 모든 공연에는 산·물·바람·소리 같은 자연이 스며들었다. 용설리 당북 마을의 뒷산, 웃는돌의 캠프장을 감싸안은 자연은 때로는 무대 세트가 되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시장이 되기도 했다. 작품 안에 전구를 넣은 이영희씨의 섬유 설치 작품은 산 중턱 곳곳에 배치되어 밤이면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현대 무용가로서 명상가로서 미국과 인도에서 활동하다가 93년 8월 '단지 자연이 좋아' 이곳에 정착한 홍신자씨는 대자연에서 펼치는 축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작품의 예술성만을 보여주는 도시 공연에서는 아무리 기를 써도 관객이 냉담할 때가 많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하는 공연에서는 예술가든 관객이든 마음이 저절로 열린다. 예술가들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공연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자연이 그것을 감싸 주기 때문이다. 예술가뿐 아니라 관객도 자연에 몸을 맡긴다. 생각이나 논리가 아니라 몸과 느낌으로 교감하는 축전이어서 예술가도 관객도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진다.”

대구에서 부인과 함께 딸의 손을 잡고 죽산 축전을 찾아온 권승하씨(38·사업)는 “일반 공연장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맛이 있다. 무대가 자연에 파묻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예술가와 작품 들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색다른 맛이다”라고 말했다.

공연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장대비를 맞으며 춤을 추고, 워크숍을 통해 전위적이고 역동적인 춤 동작을 선보인 류이치 아리사카 씨는 공연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땅과 하늘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었다. 아비뇽 페스티벌 등 여러 축전에서 공연해 보았지만 오늘처럼 비를 맞으며 자연스럽게 공연한 것은 처음이다.”

### 빠어난 예술가들이 꾸민 '2천만원짜리 잔치'

실험성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축전의 흐름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도 있었고, 굶은 날씨 탓에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점도 없지 않았으나 올해 열린 죽산국제예술제는 지역 축전의 모범으로 평가되기에 손색이 없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요란스럽게 진행하고도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지역 축전들과 비교해 보면, 단돈 2천만원으로 치른 올해 죽산국제예술제는 더욱 돋보였다. 바로 이곳이 아니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공연이 열린 데다, 국내외의 빠어난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 들이 새로운 예술을 체험하려고 먼 길을 스스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1회 때부터 축전을 지켜본 시인 황청원씨는 “이곳을 찾는 관객의 수준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예술가와 관객이 자연을 매개로 함께 교감하며 만들어 가는 죽산국제예술제는, 머지않아 한국을 대표하는 축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성·成宇濟 기자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